

목표는 주변 기기 대표 메이커!!

인쇄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변화의 시대에 인쇄 주변기기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인쇄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1999년에 설립된 진성엔지니어링(대표 이평진)으로 자동 핀 편칭기로 널리 알려진 이 회사는 제판 분야의 강자라는 평가를 뛰어넘어 인쇄 주변 기기 종합 제조사로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기기 제작사 설립에 녹아든 인쇄 경력

진성엔지니어링을 설립한 이평진 사장은 1985년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특수인쇄'를 설립하고 1993년까지 직접 인쇄사를 운영했던 인쇄인이었다.

하이텔베르그 4도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던 '수원특수인쇄'는 스티커 인쇄를 비롯한 특수인쇄 전문이었는데, 수원은 물론이고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던 중 '수원특수인쇄'는 불의의 화재로 한순간 문을 닫게 된다.

한동안 혼란을 겪던 이 사장은 이후 인쇄기기 분야로 눈

을 돌리고, 1995년부터 1도 소형 오프셋 인쇄기를 개발하게 된다. 그 당시 A3 크기 이하의 소형 인쇄기는 수입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 제품의 수입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 보급에 들어갈 경우,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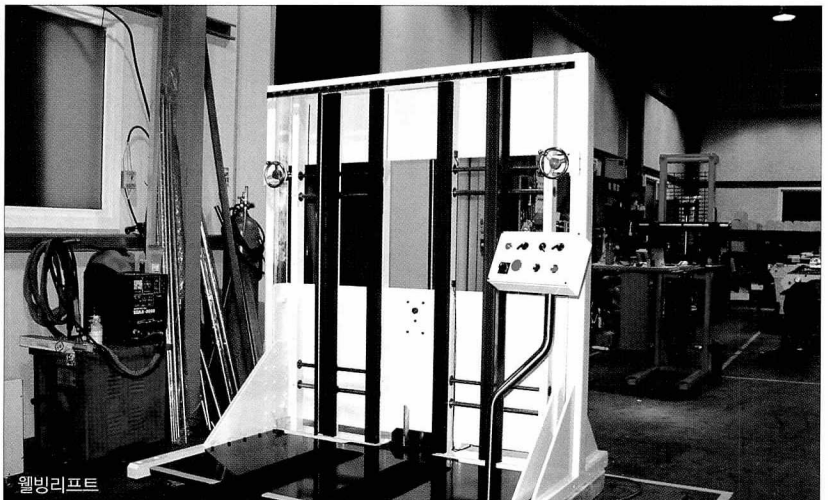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쇄사를 접으며 입은 손해를 기기 제작을 통해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인쇄기 제작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인쇄사를 운영할 때부터 인쇄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는데, 웬만한 유지·보수와 간단한 수리를 직접 담당하던 이 사장의 경험이 결국 인쇄기 제작의 길로 이끈 것이다.

국내에도 그럴듯한 인쇄기기 제조사 필요하다

인쇄기를 개발할 무렵 이 사장의 꿈은 원대했다. 국내에도 그럴듯한 인쇄기 제조사가 필요한데 그 업체를 자신의



습수정화장치



웹링리프트



진성엔지니어링 공장 모습

“

진성엔지니어링은 핀 편칭기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JGAS를 참관하고 핀 편칭기의 시장성과 그간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로써 핀 편칭기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에 1999년에 진성엔지니어링 설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

손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외국산 제품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지겠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기계성능과 인쇄품질이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인쇄업계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인쇄기를 보급하고 이를 통한 수익성 창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다. 실제로 이 사장은 그 당시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내재돼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소형 오프셋 인쇄기 개발에 몰두했다.

그러나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고 양산체제 목전에 다다랐을 무렵 꿈을 접어야 했다. 자금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소형 오프셋 시장이 급격히 붕괴하는 등 대외적인 조건도 급격하게 악화돼, 소형 오프셋 인쇄기의 시장성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인쇄기 개발 경험은 진성엔지니어링이 국산기기 메이커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

자동 핀 편칭기로 재기 이뤄

희망과 절망의 부침 속에 진성엔지니어링은 핀 편칭기와 함께 태어났다. JGAS를 참관하고 핀 편칭기의 시장성과 그간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로써 핀 편칭기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에 1998년부터 핀 편칭기를 개발한 이 사장은 1999년에 진성엔지니어링 설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핀 편칭기...자동 중앙 핀 맞춤 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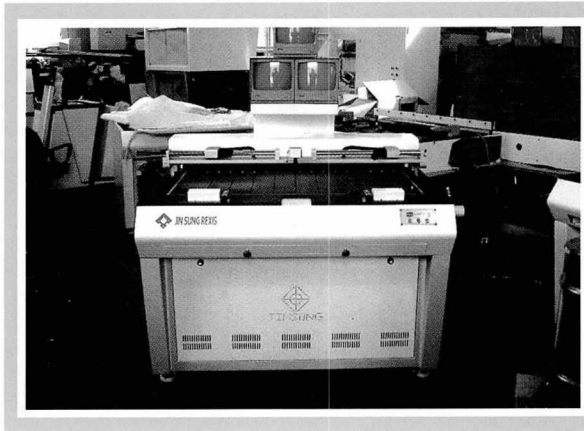
진성엔지니어링의 주력제품은 역시 핀 편칭기다. 진성엔지니어링의 핀 편칭기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자 모니터형 PS판 자동 핀 편칭기’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앞선 기술력으로 편리함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자동 핀 맞춤 기술은 작업속도를 단축시키고 정확한 인쇄작업을 실현함으로써 인쇄기기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파우더 집진장치 상



파우더 집진장치 하



“ 양면인쇄기 전용 핀 편칭기인 렉시스는 진공흡착방식으로 PS판이 손을 대지 않고도 핀 맞춤이 이뤄진다. 좌우 핀 맞춤용 모니터 2대와는 별도로 중앙 핀 맞춤 인식 카메라등을 장착할 수 있어 중심점을 보고 작업이 이뤄져 양면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

양면인쇄기 전용 핀 편칭기인 렉시스는 진공흡착방식으로 PS판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손을 대지 않고도 핀 맞춤이 이뤄진다. 좌우 핀 맞춤용 모니터 2대와는 별도로 중앙 핀 맞춤을 인식하는 카메라와 3번째 모니터까지 장착할 수 있어 중심점을 보고 작업이 이뤄지므로 양면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폐수처리장치 · 집진장치 등 환경 제품도 개발

진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05년 4월 수원에서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하며 폐수처리장치, 집진기 등의 환경 대응 제품도 개발했다. 인쇄 작업 시 발생하는 지분, 잉크찌꺼기 등의 각종 오물이 섞인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폐수처리장치인 ‘폐수제로’는 환경문제 대응장비로 특허출원중이다. 장치 성능 자체 테스트 결과, 1시간 가동 시 폐수의 80%까지 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를 통해 오염물질이 걸러지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특수필터는 특수 주문, 제작

되고 있으며 평균 필터 교체주기는 3~4개월이다.

집진장치인 ‘블랙홀’은 인쇄기 상단에 부착할 수 있는 것과 인쇄기 옆에 세워놓을 수 있는 장치 두 개가 한 세트 구성돼 있으며 인체유해성분대응장비로 역시 특허출원중이다. 완벽한 집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세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설치할 수도 있다. 기존 제품 대비 소음이 크게 줄었으며 인쇄물 양에 맞춰 집진량도 조절할 수 있다.

작업장 안전 위한 웰빙 리프트

종이쌓기, 추림 및 반전 작업을 할 수 있는 ‘웰빙리프트’는 센서와 모터에 의한 전자동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클린사업장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계가 길고 높아서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 유형의 리프트가 있는데 소형 인쇄기보다는 국전지, 4×6전지, 하드롱 전지 등의



최근 새로 도입한 기계제작 설비



조립대기중인 집진장치

대형 인쇄기에 적합하다.

개발인력은 이 사장 자신

진성엔지니어링의 기기 개발은 이 사장이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사장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도면을 작성하면 직원들은 이에 따라 조립, 생산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은 경영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연구·개발자의 업무가 추가된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 없이 이 사장이 각종 기기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쇄사를 직접 운영하며 인쇄 작업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에 편칭기도 짧은 기간에 3번에 걸쳐 개발, 3세대 편칭기로 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는 기기개발

진성엔지니어링은 내수 중심의 기업으로 수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러나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품목이 여럿 있을 정도로 기기개발은 쉽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쇄 주변기기 종합제조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고정적으로 1달에 몇 대가 수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등 수출기업의 토대를 쌓는 한편, 지속적인 기기 개발로 국내를 대표하는 인쇄 주변기기 종합 제조사로 거듭나기 위해 진성엔지니어링과 이 사장은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



차한잔 | 이평진 사장

“인쇄 경력의 기계 제작 동력”

영자로서 해야 할 일도 많은 텐데 두 가지 역할의 조율은 어떻게 하나?

● 최종결정은 내가 하지만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주고 있다. 이에 경리업무가 됐든 영업업무가 됐든 담당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직원 모두가 경영자라는 생각에 근거하며 실제로 차후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현재 직원 모두에게 경영자의 지위를 부여할 생각이다. 회사는 혼자 설립했지만 운영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에도 연구개발에 더 집중할 생각인가?

● 개발할 제품이 아직도 많이 있다. 다만 자금력이 얼마만큼 뒷받침되는가가 문제이다. 예전에는 개발할 아이템이 있으면 겁 없이 도전했는데 몇 번의 실패를 겪다보니 이제는 개발제품의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게 된다. 수익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을 얻는 과정

이 보다 신중해졌다.

● 인쇄사 화재·인쇄기 개발 실패 등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극복한 비결은?

● 한탄만 하고 있어봐야 자기 손해다. 승부욕은 있지만 안 되는 일에는 포기가 빠른 편이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새롭게 승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 인쇄기 개발을 결심할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쇄기 제조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인쇄기는 개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우리나라도 스티커 인쇄기 등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기술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개발하기 힘든 대형 오프셋 기계는 대기업이 담당하면 좋을 것 같다. 인쇄기는 자금력이 풍부한 쪽에 맡기고 진성엔지니어링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인쇄 주변장치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진성엔지니어링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인쇄사를 운영하며 불편하다고 느낀 경험을 통해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키우게 됐으며 이것이 진성엔지니어링의 기기 개발의 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지금도 저렴한 가격에 제작, 판매한다고 생각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한다. 원가절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기기를 제작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 연구·개발자의 모습이 강한 것 같다. 경